

#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畫의 圖像과 信仰 研究

유 경 희\*

- I. 머리말
- II. 白衣觀音의 起源과 展開
- III. 朝鮮 後期 白衣觀音 信仰
- IV.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畫의 圖像과 특징적 요소
- V. 白衣 표현을 통해본 白衣觀音壁畫의 樣式的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佛殿의 구조와 내부에 봉안된 불화의 형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불전의 구조는 불전의 용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 말 이래의 불전은 불상 뒤에 스크린과 같은 後佛壁面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像을 도는 의례를 하거나, 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여 拜禮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법당은 전각 내부에서 齋나 儀式이 많아지면서 불상 앞쪽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後佛壁面을 뒤로 이동시킨 불전이 주종을 이루었다. 後佛벽의 앞 공간이 신앙의 주요 공간이라면 뒷공간은 시선이 미치지 않는

---

\*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도 1 내소사 대웅보전(앞면)/후불벽(뒷면), 불전 조성연대: 1633년.

곳으로 의식의 준비공간이자 전각의 청소용구 등을 두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몇몇 불전에서는 후불벽 뒷부분 벽면에 白衣를 입은 觀音菩薩圖를 그리고 뒷문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후불벽 裏面에서도 배례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도 1).

후불벽 뒷면과 뒷문 사이의 폭이 2-3m에 불과한 불전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흰옷을 입은 관음은 시각적으로 가장 가시화가 잘 되는 圖像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주불전 후불벽 뒷면에 觀音像을 두는 것은 宋代 隆興寺 摩尼寶殿(1052)에서 最古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 11세기인 宋에서부터 성행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중국에서는 보통 뒷문을 열고 바로 像을 바라보게 하여, 전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전각 밖에서도 안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도 2). 비록 중국에서와 같이 불상의 형태는 아니지만 후불벽 뒷면에 관음보살도를 그리는 발상은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까지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벽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후불벽 이면에 조성

<sup>1</sup> 李康根,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教建築 비교 연구-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제230호(韓國美術史研究會, 2001. 6), pp. 18-19. 中國의 경우 후불벽(內陣壁)의 형식이 門字形의 扇面牆을 이루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一字形을 이루고 있다.



도 2 <觀音菩薩像>, 明代, 塑造, 쌍림사 석가전 후 불벽 뒷면.

도 있으며 후불벽이 아닌 전각의 옆벽면이나 공포 사이에 조성된 예도 있어서 주제와 관련해서 참조해야 할 사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찰의 주불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白衣觀音壁畫를 대상으로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의 조성배경과 도상적·양식적 특징을 살펴 당시 관음신앙이 어떻게 불교회화로 가시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된 백의관음벽화의 양식을 고찰하거나 조선 전기 無爲寺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sup>2</sup> 최근에는 개별 자료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 麻谷寺 백의관음벽화의 편년에 관한 고찰, 또 무위사 極樂寶殿 백의관음벽화와 의식과의 관계성을 고찰한 축적된 연구가 있었다.<sup>3</sup> 선행 논고들의 바탕 위에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주목한 부분은 역시 이 공간에서의 신앙 의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의례에 대한 해석은 당시 관음신앙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존하는 후불벽 뒷면에 조성된 백의관음도는 7점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후불벽에 백의관음도가 아닌 수월관음도가 그려진 경우

<sup>2</sup> 오세례, 「朝鮮時代 後佛壁裏面 白衣觀音圖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文明大, 「新興寺 대광전 벽화의 고찰」, 『美術史學研究』 제193호(韓國美術史學會, 1992), pp. 63-76; 장충식, 「無爲寺壁畫白衣觀音考」, 『정도학연구』 4(한국정도학회, 2001), pp. 61-90[『한국 불교미술 연구』(시공사, 2004), pp. 132-150에 재수록]; 배종민, 「강진 무위사 극락전 벽화 연구」(전남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朴鐘大, 「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畫 研究」(威德大學校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경, 「조선 17-18세기 관음보살도 연구」, 『역사와 경계』 제61집(부산경남사학회, 2006. 12), pp. 25-56; 황금순, 「朝鮮時代 觀音菩薩圖 圖像의 한 研究」, 『美術資料』 第七十五號(國立中央博物館, 2006), pp. 55-90; 이경화,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 『불교미술사학』 제5집(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263-287.

<sup>3</sup> 김미경, 「마곡사 대광보전과 白衣觀音壁畫」, 『한국의 사찰벽화-충청남도·충청북도』(문화재청·성보문화재단 연구원, 2007), pp. 369-383; 이승희,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東岳美術史學』 제10호(東岳美術史學會, 2009), pp. 59-84.

## II. 白衣觀音의 起源과 展開

觀音信仰은 북서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발전해 가면서 그 지역마다의 토착 신앙을 흡수하며 가장 폭넓게 신앙되었다. 唐代 이후부터는 중국에 밀교경전이 도입되고 번역되면서 관음신앙도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妙法蓮華經』 第25品 「觀世音菩薩普門品」은 인도에서 성립된 관음보살의 주요 경전이다. 이 경전에서부터 관음보살은 중생의 根器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典據에 따라 다양한 변화관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 가운데 白衣觀音은 흰옷을 입고 白蓮花 위에 걸가부좌한 도상으로 楊柳觀音, 水月觀音 등과 『法華經』 「普門品」의 33變化觀音 중의 하나로 유래가 되었다.<sup>4</sup> 한편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된 백의관음은 관음의 여성배필인 타라보살로, 이 밀교여신이 중국에서 백의관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sup>5</sup> 기원에 관련된 다양한 설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백의관음 도상은 경전적인 직접적 근거보다 중국의 본토문화에서 나타나 발전하였다는 논의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sup>6</sup>

즉 백의관음은 인도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중국 唐代에 생겨난 변화관음의 하나로 이때부터 清代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앙된 듯하다. 백의관음과 관련된 중국 기록 가운데 唐代 기록이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唐代 王勃(647-675)의 시 중에 '달빛에서 백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몸에는 雲羅와 같은 素服을 입었다.'라고 형용한 것으로 보아 백의관음의 모습은 흰옷을 입은 모습이 가장 주요한 특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이후 중국에서 백의관음 신앙은 唐末부터 五代十國에 확산되었는데 특히 북중국 遼와 남중국의 吳越國에서 성행하였다.

<sup>4</sup> 『望月佛教大辭典』 5卷(世界聖典刊行協會, 1936), p. 4337 白衣觀音項; 佐和隆研 『佛像圖鑑』(東京: 吉川弘文館, 1962), pp. 414-416; 後藤大用, 『觀世音菩薩の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76), pp. 170-174.

<sup>5</sup> Chün-fang Yü, "G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hvara",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the Chinese Buddhism 850-1850*, Spencer Museum of Art and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151-152.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깨달음, 즉 정각을 지혜와 자비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데, 밀교에서는 지혜와 자비와의 이 두 결합을 여성과 남성과의 결합으로 상징되었다. 그리하여 서장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과의 결합관을 확대시켜 불화 보살마다 각기 남성과 여성을 설정하여 놓기까지 이르렀다. 관음의 경우 역시 남성과 여성이 설정되었고 관음의 여성배필로 백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sup>6</sup> 李玉珉, 「中國觀音의信仰與圖像」, 『觀音特展』(臺灣: 國立故宮博物院, 2000),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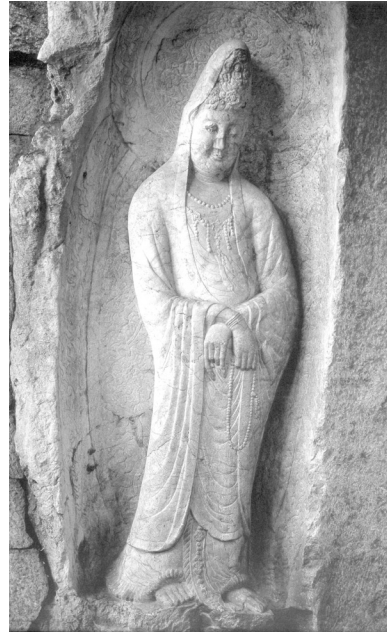
<sup>7</sup> 唐, 王勃(647-675) "皎若現白衣之相身卦雲羅素服" [李玉珉, 위의 논문, p. 29 재인용].

『遼史』卷四十九에는 ‘太宗이 幽州 大悲閣에 행차하여 白衣觀音像을 옮기고 木葉山에 사당을 짓고 家神으로 받들었다.’<sup>8</sup> 또 ‘遼의 太宗 耶律德光이 꿈속에서 본 神人이 백의관음이었다.’라는 기록 등을 통해 遼에서는 백의관음 신앙이 특히 왕실에서 선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남중국의 吳越國에서도 백의관음 신앙이 확산되었음을 『咸淳臨安志』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후진 천복 4년, 939년 승려 도익이 오두막집을 짓고 산속에 사는데 밤중에 광채가 있어 살펴 보니 기이한 나무를 얻었다. (그리하여 도익은) 공임검에게 관음상을 조각할 것을 명하였다. …… 전충의왕이 꿈에 백의를 입은 사람이 거처할 곳을 찾았는데 왕이 잠에서 깨어 그 땅에 다 불사를 짓고 천축간경원이라 하였다.<sup>9</sup>

吳越王 錢忠懿가 세운 天竺看經院은 이후 杭州의 上天竺寺로 백의관음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상천축사의 백의관음상은 영험한 징조를 자주 보였다. 杭州 煙霞洞의 〈白衣觀音菩薩像〉(도 3)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조성된 보살상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백의관음은 五代十國의 혼란기 속에서 요나라와 오월국에서 왕실의 수호신으로 비호를 받으며 확산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宋代에 이르면 백의관음에 특별한 신앙이 부여되는 것 같다. 원래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바램인 아이를 얻는 신앙은 현실의 구제를 담당한 관음이 부여받은 것으로 六朝時代부터 나타났었다. 그런데 송대에는 아이를 주는 관음이 ‘送子觀音’으로 인식되었고 아이를 안고 하얀 백의를 입은 백의관음



도 3 〈觀音菩薩立像〉, 北宋, 浙江省 杭州 煙霞洞 洞口 西壁.

<sup>8</sup> 元 托克托等, “太宗幸幽州大悲閣遷白衣觀音像 建廟木葉山 尊爲家神.” 『遼史』 卷四十九 [李玉珉, 앞의 논문, p. 30 재인용].

<sup>9</sup> 宋 潛說友 『咸淳臨安志』 卷四十九, “後晋天福四年(939) 僧道翽結廬山中 夜有光就視 得奇木 命孔仁謙刻觀音像, ……錢忠懿王(947-978 在位) 夢白衣人求治其居 王感寢 乃卽其地創佛廬 號天竺看經院.” [李玉珉, 위의 논문, p. 30 재인용].



도 4 明 仇氏, 〈白衣大士像〉, 16세기 후반



도 5 淸, 周克復, 『觀世音持驗紀』, 1659년刊,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표지(上), 권두변상(下)

의 모습으로 도상화되었다.<sup>10</sup> 그러다가 明末에는 『白衣觀音經(白衣觀音呪)』과 『白衣大悲五印陀羅尼』의 성행과 민간전설, 話本고사, 寶卷의 영향으로 대부분 백의관음은 송자관음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백의관음경』은 매우 짧은 주문을 담고 있는데 경전의 반복과 암기를 통해 아이를 받는 확실한 효력을 입증시켰다. 명대의 백의관음은 명주로 만든 흰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부터 白巾을 쓰고 있으며 持物은 楊柳와 淨瓶, 염주를 들고 있다(도 4).<sup>11</sup>

<sup>10</sup> 대표적으로 元豐 5년(1082)의 관음 석각은 관음보살의 머리에 大巾을 쓰고 바위에 앉아 있고 뒤에는 대나무 몇 그루가 있으며 앞에는 연꽃 몇 송이가 있다. 무릎 위에 아이 하나를 안고 있으며 앞에는 경전을 펼쳐 읽는 2명의 동자가 있다. 관음보살의 지물인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와 물잔 옆에 놓여 있으며 그림 상면에 『白衣大悲五印陀羅尼經』을 題刻하고 있다. 潘 亮文, 「白衣觀音像についての一考察」, 『佛教藝術』 231(毎日新聞社, 1997), pp. 36-39.

<sup>11</sup> 李玉珉, 앞의 논문, 『觀音特展』, 앞의 책, pp. 195-196.

清代에는 명말부터 전승되어온 『白衣觀音經』의 지속적인 유행과 더불어 백의관음의 영험을 받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는 실제적인 체험기가 唐代부터 清代까지 실존인물로 구성된 영험록의 형태로 유포되면서 백의관음 신앙이 민간신앙으로 저변화되었다. 1659년 周克復은 『觀世音持驗紀』(도 5)라는 제명으로 관음보살과 관련된 영험담 118건을 수록하여 편찬하였는데 이 가운데 11건이 백의관음 영험담이며, 모두 아들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의관음이 아들을 주는 송자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후 주극복이 편찬한 편찬한 책을 22년만에 조선에서 입수한 性聰(1631-1700)은 이 영험담 중에서 취사선별하여 59건으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sup>13</sup> 이후 100여 년 뒤에는 楊州 佛岩寺에서 승려 智瑩에 의해 언해본으로 간행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에 백의관음이 송자신앙으로 저변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I. 朝鮮 後期 白衣觀音 信仰

신앙에 대한 感應과 靈驗은 종교인들에게 큰 영광이며 이를 계기로 굳건한 믿음과 실천력을 갖게 된다. 인간은 죽음 이후 彼岸의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점은 종교의 발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 저승사자를 보고 온 이야기는 옛부터 두렵고 믿고 싶지 않는 이야기였으며 이러한 주제는 地藏信仰과 같은 종교성과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인간 본연의 마음을 자극시키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영험담 가운데 조선 후기 백의관음과 관련된 영험과 간행사례를 살펴 이 시기 백의관음에 관한 신앙배경을 살펴보고, 17세기 노론계 문인에 의해 간행된 국문소설인 『사씨남정기』를 통해 문학에서 표현된 백의관음 내용과 그 신앙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sup>12</sup> 주극복은 생애와 행적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명말청초에 활동한 인물로, 정토신앙에 귀의한 대표적인 거사이다. 특히 그가 편찬한 책들 가운데 『淨土晨鐘』 10권 중 淨土持驗篇은 엄불 수행을 통한 극락으로 왕생한 이들의 영험담을 담고 있는데 주로 경진 중 영험실화를 편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제68집(부산경남사학회, 2008. 9), pp. 94-95.

<sup>13</sup> 조명제, 위의 논문,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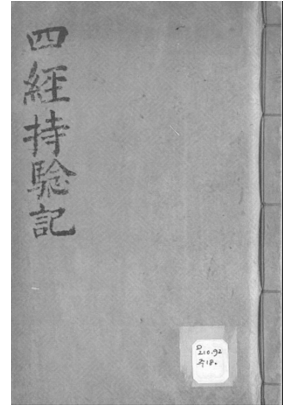
## 1. 觀音靈驗說話와 白衣觀音

조선 후기 관음경전 가운데 다라니, 진언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관음영험전의 간행과 유포이다. 『觀世音菩薩持驗紀』·『觀世音菩薩持訟靈驗傳』·『觀世音菩薩靈驗略抄』 등의 영험록과 『觀音靈果』 등의 占書는 조선 후기 유행된 관음영험록과 관음점서라 할 수 있다.<sup>14</sup>

필자는 이와 같은 영험당 중에서 조선시대 澄光寺에서 栢菴 性聰(1631-1700)에 의해 간행된 『靈驗錄』(도 6)에 주목하였다. 『영험록』은 4經의 영험담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관음영험록인 『觀世音持驗紀』이다. 백암 성충은 숙종 7년(1681) 임자도에 표착한 중국의 배에서 발견한 190여 권을 가지고 와서 澄光寺, 雙溪寺를 중심으로 5,000판에 새겨 간행하였다.<sup>15</sup> 성충이 편집하여 간행한 전적 네 經의 표제가 바로 『靈驗錄』이다. 즉 이 『영험록』 안에는 四經의 지험기, 즉 金剛, 法華, 觀音, 華嚴經의 영험을 실고 있으며 이 중 관음영험은 「관세음지험기」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원래 『觀世音持驗紀』는 清代 周克復이 1659년에 편찬한 것이었다. 주극복이 청에서 1659년에 편찬한 책을, 조선에서 22년 뒤에 입수한 성충은 124건의 영험담 가운데 취사선별하여 59건으로 편집·간행하였다.<sup>16</sup>

필자는 청대 주극복이 편찬한 『觀世音持驗紀』와 이를 다시 편찬한 성충본 『영험록』의



도 6 栢菴 性聰(1631-1700), 『四經持驗紀』, 澄光寺刊, 1681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sup>14</sup> 조선시대 관음신앙과 경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였다. 李逢春, 「朝鮮時代の 觀音信仰」, 『韓國 觀音信仰研究』(東國大出版部, 1988), pp. 163-204; 김수현, 「朝鮮時代 觀音圖像과 信仰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朝鮮中後期の 觀音經典 刊行 研究」, 『文化史學』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pp. 137-158; 천중환, 「관음신앙연구」(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들 논문은 조선 후기 관음 관계 불서들을 통해 신앙의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사찰판 관음 관계 불서의 유행, 관음관계 경전 중 眞言이나 陀羅尼와 같은 의식류 불서의 유행, 경전의 이해 등을 공통점으로 보고 있다.

<sup>15</sup> 『肅宗實錄』 7년 7월 9일[조명제, 앞의 논문, pp. 90 재인용]

<sup>16</sup> 「관세음지험기」의 직접적 입수경위는 백암 성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청의 문물을 수입했던 17세기 조선사회에서는 청대의 불교전적의 수입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觀世音持驗紀」 중 백의관음 내용만을 뽑아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청대 주극복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sup>17</sup> 성충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영험록』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sup>18</sup>

표 1 清代 周克復本과 조선 후기 性聰本 白衣觀音 관련 내용

周克復 『관세음지험기』(淸, 1659년)	性聰 「관세음지험기」(조선, 1681년)	시대	출전
衡陽人의 영험/頌 『白衣觀音經』/得男	衡陽人의 영험/頌 『白衣觀音經』/得男	唐代	『白衣經紀驗』
釋遵式的 영험/見 白衣觀音/治病	내용 없음	宋代	『蓮宗寶鑿』
張慶의 영험/見 白衣大士/得男	내용 없음	宋代	『感應篇傳』
翟楫의 영험/夢 白衣夫人/得男	翟楫의 영험/夢 백의부인/得男	宋代	『轉劫輪』
伯顏定の 영험/現 白衣大士, 童子	내용 없음	元代	『觀音感應』
王玉의 영험/誦 『白衣觀音經』/得男	王玉의 영험/誦 『白衣觀音經』/得男	元代	『白衣經紀驗』
寶征의 영험/誦 『白衣陀羅尼』/得男	내용 없음	明代	『感應篇增注』
李清의 영험/誦 『白衣觀音經』/得男	李清의 영험/誦 『白衣觀音經』/得男	明代	『己求書』
龍子の 영험/得 『白衣五印心經』 施 『白衣經』/得男 張貴의 영험/得 『白衣經』 施 『白衣經』/得男	龍子の 영험/得 『白衣五印心經』 施 『白衣經』/得男 張貴의 영험/得 『白衣經』 施 『白衣經』/得男	明代	『白衣經紀驗』
梁元征의 영험/誦 『白衣觀音經』/得男	내용 없음	清代	『法華感通』

청대의 주극복본을 살펴보면 총 118편 중에서 11편이 백의관음, 『백의관음경』과 관련된 백의관음 신앙이었고 성충본 역시 총 53건 중 6건이 백의관음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주극복본과 성충본의 백의관음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1건을 제외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백의관음을 신앙하여 『백의관음경』을 지송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送子 혹은 求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성충의 「관세음지험기」는 1795년 楊洲 天寶山 佛岩寺에서 승려 智瑩이 관음신앙을 크게 진작시키려는 뜻에서 한글로 찬집하여 『觀世音菩薩持誦靈驗傳』이라는 제목으로 간

<sup>17</sup> 淸 周克復纂, 『觀音持驗記』 上, 日本: 刊寫者未詳, 1683년 간행,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청구번호: 1721 17 1/2).

<sup>18</sup> 『靈驗錄』: 「金剛經持驗紀(持驗 上)」, 「華經持驗紀(持驗 中)」, 「觀世音持驗紀(持驗 下)」, 「歷朝華嚴持驗紀(華嚴持驗)」。 木活字本, 樂安: 澄光寺, 康熙 25(1686)刊,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청구번호: 213.199 영93).

행되었다.<sup>19</sup> 책의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책은 관세음보살을 지성으로 외우면 영험을 얻는다는 것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사회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영험 그 이상의 것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지영의 『관세음보살지송영험전』에는 총 26건의 관음영험설화를 수록되었고 治病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예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得男과 送子와 관련된 내용은 3건으로 전체 비율 가운데 차지하는 예는 많지 않았지만 세 건 모두 백의관음과 관련된 경전과 백의관음을 친견하여 아들을 얻었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편찬·간행된 관음경전을 중심으로 백의관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모두 아들을 구하는 신앙과 백의관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현실의 절실함은 『백의관음경』을 열심히 지송하면 백의관음이 현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영험은 곧 送子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아들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모두 백의관음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송자신앙으로 七星閣에서의 칠성신앙이 전통적이면서도 대표적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되었다. 이것은 관음 신앙 가운데 백의관음 신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간행된 관음경전의 면모를 살펴본 결과 아들을 구하는 신앙에는 칠성신앙 뿐 아니라 백의관음 신앙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백의관음 신앙이 사찰의 주전각인 대웅전 후불벽 뒷면에 조성된 백의관음도로 가시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를 두려한다.

조선 후기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영험록은 『관세음지험기』 이외에도 『光世音應驗記』·『續光世音應驗記』·『繫觀世音應驗記』·『法華傳記』·『法華靈驗傳』 등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저변으로 '언해'라는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대상으로 번역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청대 주극복본을 저본으로 하고 백암 성충의 「관세음지험기」를 대상으로 하는 본이 선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암 성충의 영향력보다<sup>20</sup> 「관세음지험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당시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음신앙의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sup>19</sup> 金贊鎔, 「朝鮮時代に 流布되었던 觀音靈驗說話」(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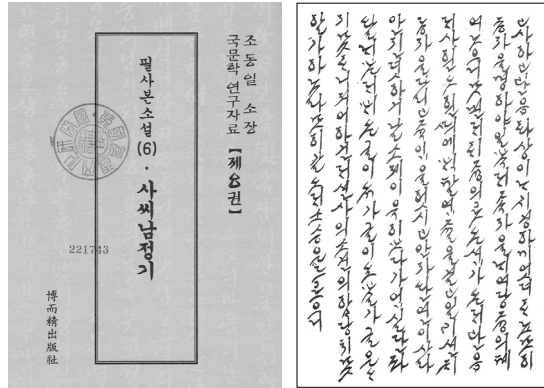
<sup>20</sup> 백암 성충은 碧巖 覺性(1575-1660)의 2세 제자로 30세 때 강사가 되었고 昇平 松廣寺와 樂安 澄光寺 및 河東 雙溪寺 등 여러 사찰을 왕래하면서 학인을 가르쳤으며 경전의 刊行弘通者로서 불교계에 지대한 공을 남겼다고 한다. 김찬용, 위의 논문, pp. 20-21.

## 2. 국문소설에 수록된 백의관음 신앙

윗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7세기 조선의 불교는 明·淸의 佛書를 수용하여 이를 간행하였고, 또 '언해'라는 변화과정을 통해 점차 서민의 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단의 동향도 틀린 것은 아니어서 중국 명·청 문학의 영향과 천기론의 등장, 천기론과 맞물린 평민·중인들의 활발한 문단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란을 통해서 중국문화가 국내에 대량 유입되었고 전대 문품에 대한 비

판적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데 있다.<sup>21</sup> 이 시기 조선의 사상가이자 유학자들의 문학도 불교를 배제시킬 수 없다. 이 절에서는 17세기 대표적인 문인이자 유학자인 金萬重(1637-1692)의 소설 『謝氏南征記』(도 7)를 통해 당시의 문학에 내제된 불교신앙 내용 가운데 백의관음 신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씨남정기』는 肅宗(1661-1720)이 계비 仁顯王后(1667-1701)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맞이하려는 데 반대하다가 南海島로 유배된 김만중이 배소에서 호려진 임금의 마음을 참회시키고자 이 작품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소설의 내용은 숙종과 인현왕후·희빈 장씨를 중국인으로 묘사하여 비유와 은유하고 있으며 소설의 배경도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다.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명나라 劉炫의 아들 延壽(유한림)는 15세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유한림은 그 후 덕과 才學을 겸비한 謝氏와 혼인하였으나, 9년이 지나도록 소생이 없자 喬氏를 후실로 맞이하며 전개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교씨(인현왕후를 비유한 인물)와 유한림의 인연의 매개가 觀音像과 觀音題詩였으며 이후 관음은 전개과정에 중요한 소재로 긴밀한 구성요소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백의관음과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2</sup>



도 7 『謝氏南征記』, 趙東一 소장본 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표지와 해당 내용 부분.

<sup>21</sup> 유호선,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불교인식과 불교문학」(태학사, 2006), pp. 37-39.

<sup>22</sup> 현재 김만중의 『謝氏南征記』의 원문은 전하는 것이 없고, 원문에 가장 가까운 본이 趙東一 소장본이다. 『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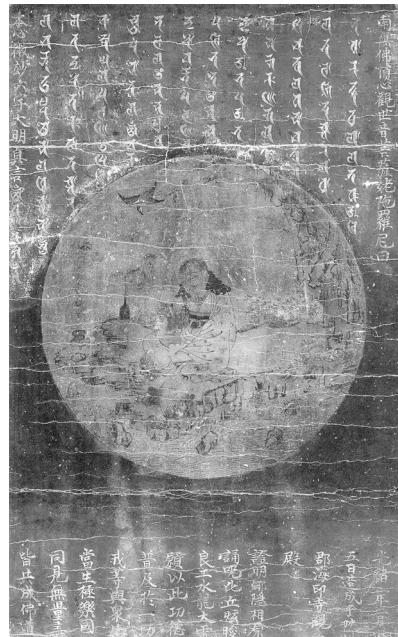
1) 끝없이 펼쳐진 큰 바다 가운데 의로운 섬에 관음대사가 흰옷, 흰띠에 백팔염주를 걸고 일개 선재동자를 데리고 죽림을 헤치고 앉아 완연히 살아계신 듯 하거늘 ……

2) 관음은 옛적 성인이라. 그 덕행이 주나라 태임태사와 같도다. ……(중략) 내 화상을 보건대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다. 그림을 인연하여 그 위인을 대강 알리로다. ……(후략)

소설은 글로만 적혀있고 이미지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관음도상을 살펴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관음보살의 도상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음의 거처인 寶陀洛伽山의 관음보살이 있는 모습인데, 관음은 흰옷을 입고 흰 띠를 했으며 한 손에는 염주를 걸고 그 옆으로는 선재동자와 함께 있다. 두 번째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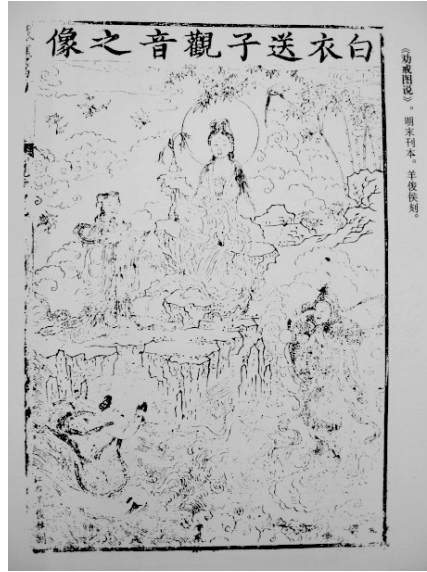
도 8 〈觀音菩薩圖〉, 1858년, 견본채색, 231.5×202.0cm, 양산 통도사 관음전.



도 9 〈海印寺 觀音菩薩圖〉, 1876년, 견본채색,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8권-필사본소설(6) 사씨남정기』(도서출판 박이정, 1999), p. 21. 고어의 현대 국어 해석은 『한국고전문학 100-27 謝氏南征記』(瑞文堂, 1994), p. 17을 참조하였고,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소설 전공 강문중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은 생략되어 있지만 흰옷을 입은 관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두 이미지는 대략 조선 후기 불화나 판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도상은 통도사 관음전의 <觀音菩薩圖>(1858년)(도 8)를 비롯한 다수의 백의관음도에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해인사 觀音菩薩圖>(1876년)(도 9)나 <白衣送子觀音像> 관음판본(도 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10 <白衣送子觀音像>, 『勸戒圖說』, 明代刊本.

소설 속에서도 유한림과 결혼한 사씨는 아이가 없었다. 관음에게 절실히 아이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 글 가운데 나오고 있으며 또한 사씨의 현실 속의 고통을 들어주는 분은 관음보살이었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형상은 흰옷과 흰띠를 하고 있으며 선재동자가 함께 하고 있거나 흰옷을 입은 관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후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백의관음은 소설의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사로서 등장하고 그 후광에는 백의관음보살의 가피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조선 후기의 국문소설이지만 펼쳐지는 배경은 明代 嘉靖年間の 金陵 順天府로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다. 당시 대다수의 국문소설의 배경이 중국이었으므로 특기할 만한 배경설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학문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태도를 일관했던 김만중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의 아들 北軒 金春澤(1670-1717)에 의해 이후 한문소설로도 번역되었다.

17세기 선진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불교와 불경에 진일보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김만중의 소설 속에 삽입된 백의관음은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그 상징성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문화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후 조선사회에 백의관음의 신앙 속에는 어느 정도 송자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추측된다.

17세기 조선사회는 명말청초의 주석서, 영험담 등을 담은 전적을 새롭게 수용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는 불교적인 소양을 갖춘 유학자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수용하고 있었다. 당시의 불교경전과 문학을 통하여 사회적인 경향과 신앙 경향

의 일면을 파악하는 가운데 백의관음 신앙은 조선사회의 送子를 희구하는 바람과 맞물려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남자아이를 얻어 가계를 잇게 하려는 가문의식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畫의 圖像과 특징적 요소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로 조성된 작례를 통해 백의관음도의 주요 도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필자가 답사를 통해 조사한 조선 후기 후불벽 뒷면에 조성된 관음보살도의 예는 10여 점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흰옷을 걸친 백의관음은 7건에 해당되었다. 한편 후불벽 뒷면은 아니어도 불전의 좌우측 벽이나 공포 사이의 협칸과 불전 내측 벽면에도 백의관음을 조성한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sup>23</sup>

표 2 조선 후기 후불벽 뒷면 관음 벽화 목록

작품명	봉안처	불전 조성연대	재질	기타
1 백의관음도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	1624년	土壁 貼付종이	
2 백의관음도	전북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후불벽 뒷면	1633년	토벽채색	
3 백의관음도	경북 청도 운문사 대웅전(현 비로전) 후불벽 뒷면	1653년	토벽채색	*옆에 달마도
4 백의관음도	전북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후불벽 뒷면	1662년	토벽채색	
5 백의관음도	전남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후불벽 뒷면	1774년	토벽채색	
6 백의관음도	충남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후불벽 뒷면	1813년	土壁 貼付종이	
7 백의관음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 뒷면	1840년	토벽채색	*양 옆 인왕상

[기타 참고자료]

- \* 금산사 대적광전 후불벽 뒷면 백의관음도: 결실
- \* 관룡사 대웅전: 수월관음도
- \* 신흥사 대광전 후불벽: 관음삼존도(4차 중창시 '대광전'으로 바뀜. 17세기는 대웅전)
- \*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수월관음도
- \* 범어사 대웅전 백의관음도: 포벽에 조성
- \* 대원사 대웅전 백의관음도: 대웅전 내 옆벽에 조성. 맞은편에 헤가단비도 조성
- \* 통도사 관음전 백의관음도: 창방 위 벽면에 조성

이상 표를 통해서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선 후기의 예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불전 내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백의관음벽화 중 가장 선구적인 예를 보이고 있어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의 선례가 된 무위사 백의관음벽화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겠다.

### 1. 朝鮮 前期 無爲寺 白衣觀音壁畫의 圖像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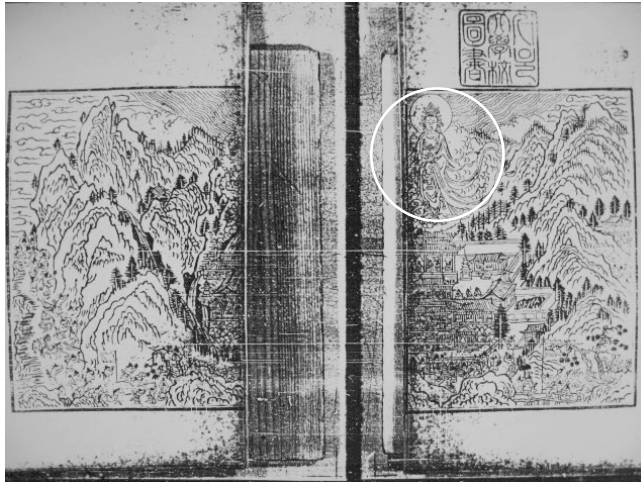
1476년(成宗 7)에 조성된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壁畫(도 11)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백의 관음벽화 중 가장 이른 作例를 보여준다. 무위사 주불전인 극락보전에는 阿彌陀佛과 觀音과 大勢至菩薩의 三尊을 이룬 阿彌陀三尊像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뒤로 아미타삼존을 회화화한 阿彌陀三尊圖가 토벽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아미타삼존도가 그려진 벽면을 접하고 있는 그裏面 벽에는 머리부터 발아래까지 白衣를 입고 물결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잎에 서있는 백의관음을 그렸다. 관음보살은 두 손을 교차한 상태로 두 손에는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었다. 현존하는 조선 전기 백의관음벽화의 사례는 무위사본 이외에는 현전하지 않아 도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과악이 어렵지만 아마도 무위사 백의관음벽화와 같은 관음도상이 조선 후기의 백의관음 도상의 형성에 시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색 불화는 아니지만 1462년(세조 8) 世祖가 上院寺에서 觀音現相을 親見하고 이를 기록한 崔恒(1409-1474)의 『觀音現相記』의 앞장에 관음변상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도 12).<sup>24</sup> 여기서 관음도상은 입상의 형태로 두 손을 모아 정병을 들고 있다. 그러나 채색화가 아니어서 관음의 복식이 백의인지를 확인할



도 11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 뒷면 백의관음벽화

<sup>23</sup> 이 유형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 동측면 협칸의 백의관음도, 전남 대원사 극락전 우측벽의 백의관음도, 통도사 관음전 창방 위의 백의관음, 신흥사 대광전의 우측벽에 아미타의 좌협시로 표현된 백의관음도 등이 있다. 또한 전각의 외부 벽면에도 헤아리지는 않지만 다수의 백의관음도를 확인할 수 있다.

<sup>24</sup> 崔恒, 『觀音現相記』, 木版本, 1462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 6611.



도 12 崔恒, 『觀音現相記』, 146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수 없지만 머리에는 백의가 쓰여지지 않고 보관만을 쓴 모습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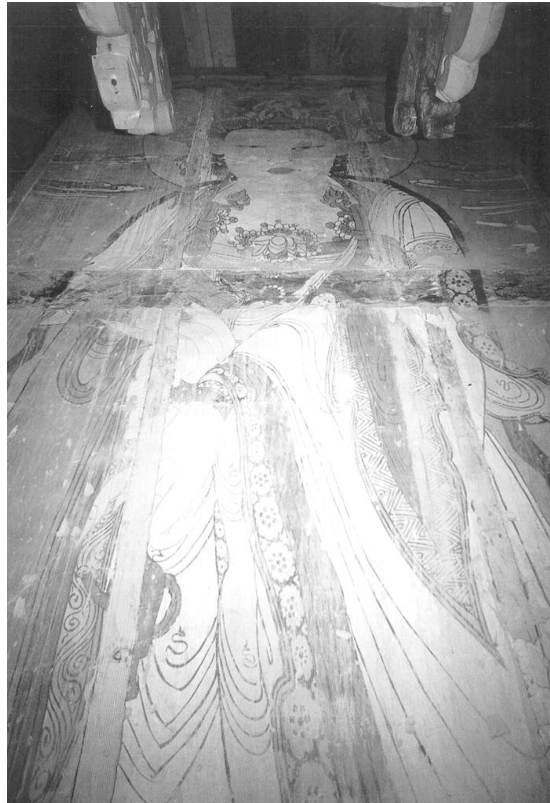
후불벽 이면에 백의관음을 형상화한 무위사본 백의관음도를 禮懺儀式과 淨土往生信仰이 결합된 『白衣禮文』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sup>25</sup> 『백의예문』은 『白衣觀音禮懺文』으로, 普陀洛迦山에 거주하는 聖白衣觀自在菩薩에게 참회하는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참회 때마다 “迴願往生無量壽國”이라고 하여 무량수국으로의 왕생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회의식에 알맞은 구조로 무위사 극락보전에서 후불벽의 뒷면에 백의관음을 예참하고 앞으로 나오면 아미타삼존불을 바라볼 수 있는 전각구조와 신앙, 벽화와의 관계를 해석하였다.<sup>26</sup> 이와 관련해서 조선 후기에도 전라북도 완주시 威鳳寺 普光明殿에 조성된 백의관음벽화(도 13)가 주목된다. 위봉사 보광명전은 ‘빛을 두루 비춘다’는 의미로 전각 내에는 아미타삼존상을 봉안하였다. 주불전이 아미타전각으로 후불벽 이면에 백의관음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무위사 극락보전과 일치하고 있다. 위봉사 보광명전은 바닥이 전들로 깔려 있었던 점(현재는 마루), 장엄법식의 특징에서 17세기 이전의 조성으로 추정하는데<sup>27</sup> 백의관음의 도상은 보관에서부터 백의의 모습이 아니라 어깨에서부터 백의를 입고 있다. 두 손은 완전히 교차하지는 않았지만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왼손은 내려 정병을 쥐고 있다. 오른손은 윗부분이 박락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을

25 이승희,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東岳美術史學』 제10호(東岳美術史學會, 2009), pp. 59-84.

26 이승희, 위의 논문, p. 72.

27 申榮勳, 『考古美術』(前 『美術史學研究』) 第136·137號(韓國美術史學會 1978. 3), pp. 192-201.

모으고 있다. 벽화가 조성된 뒷벽의 공간이 좁고 어두워서 도상의 확인이 어렵지만 관음의 백의는 보관부터가 아닌 어깨로부터 입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 무위사의 예와 위봉사의 예에서는 모두 불전의 성격이 아미타전각 내에 조성된 백의 관음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예참의식과 정토왕생신앙의 결합된 관음의식을 배풀 수 있는 가능성을 보낼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백의관음과 정토신앙의 결합이라는 특색이 조선 시대 전기에 국한되서 해석될 수 있을지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가 위봉사와 천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웅전이라는 범화신앙의 주전각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sup>29</sup> 범화신앙과 백의관음의 결합에 관한 해석이 미해결과제로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도 13 위봉사 〈白衣觀音圖〉, 조선 후기, 토벽채색.

<sup>28</sup> 천은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의 경우는 아미타전각이지만 백의관음의 경우는 입상의 형태는 아니다. 천은사의 후불벽 이면의 경우 채색, 관음의 기댄 바위표현, 선재동자의 복식 등에서 시기적으로 19세기 말-20세기 편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큰 시기적 차이에 따라 신앙의 변모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sup>29</sup> 운문사 비로전의 경우도 현재는 비로전이라 되어있지만 원래는 대웅전이었으며, 신흥사 대광전도 현재 바뀐 이름으로 17세기에는 대웅전이였다.

<sup>30</sup> 단언할 수는 없지만 『行願彌陀及觀音禮文』과 같은 의식집도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식 집일 것이다. 이 의식집은 1483년(성종 14)에 간행된 저자 미상의 불교의식집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경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관한 예경의식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무위사와 위봉사와 같은 아미타신앙과 관세음신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이 의식집과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佛敎文化研究所,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 2. 水月觀音 圖像의 변화와 白衣觀音

조선 전기 무위사 백의관음벽화를 필두로 하여 조선 후기에는 불전의 주전각 후불벽 뒤에 백의를 입은 백의관음도가 조성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拜禮를 중심으로 하는 후불벽 앞면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뒷면(이면)은 창고로 사용한다던지 아니면 아예 공간이 적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sup>31</sup> 백의관음도는 백의라는 천의 특성을 제외하면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수월관음도가 벽화로 조성된 느낌을 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후불벽 이면 벽면에는 수월관음도의 도상에 천의를 백의로 바꾼 관음보살도가 조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 후기 후불벽 이면 관음벽화의 7건 중 위봉사 백의관음벽화를 제외한 6건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도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월관음도상은 『華嚴經』 「入法界品」에서 거처하는 관음보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普陀洛迦山에 거처하는 관음보살에게 선지식을 구하러 온 善財童子가 기본적인 모티프를 이룬다. 조선 전기부터 기본적인 구성 외에도 위태천, 용녀, 용왕의 도상이 추가되면서 중국 명대 벽화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sup>32</sup>

백의를 입은 관음도상은 아니지만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조선 후기 수월관음도상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경남 창녕 觀龍寺 大雄殿의 후불벽 이면에는 정면향을 하고 遊戲坐의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앉아 있다(도 14). 그 아래 오른쪽에는 합장을 한 선재동자와 바위 끝에 놓여진 정병은 조선 전기 이래 전통적으로 조성되어 왔던 수월관음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65년 8월 관룡사 대웅보전의 해



도 14 〈觀音菩薩圖〉, 18세기, 창녕 관룡사 대웅전 후불벽 이면.

31 李康根, 「朝鮮後期 佛教寺院建築의 傳統과 新潮流-佛殿 內部空間의 莊嚴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第202號 (韓國美術史學會, 1994. 6), pp. 144-150.

32 박은경, 「조선전반기 불화의 對中交涉」,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6), pp. 94-100.

체 보수공사를 하면서 어칸 마루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이 전각은 1401년(太宗元年)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1601년(光海君 1)에 중수하였고, 이어 1749년(英祖25)에 중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3</sup> 이 벽화가 전각의 마지막 중수시점이었던 1749년에 함께 조성된 것이라면 18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18세기 관음보살도로는 여수 興國寺 觀音殿에 畫僧 義謙이 조성한 〈觀音菩薩圖〉(1723)(도 15)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瑞光庵 觀音菩薩圖〉(1725), 역시 의겸에 의해 조성된 雲興寺 〈觀音菩薩圖〉(1730년)와 의겸 작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觀音菩薩圖〉(1730) 등이 있어 18세기에는 화승의겸에 의해 제작된 관음보살도가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723년 여수 흥국사에서 조성한 〈관음보살도〉는 조선 후기 관음보살도의 典範이 되면서 이후에 제작되는 관음보살도의 도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up>34</sup> 실제로 관룡사 수월관음벽화는 화려한 보관을 쓴 관음보살의 모습과 정병, 선재동자의 표현까지 의겸이 조성한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관음보살도〉와 유사성의 살필 수 있다. 또한 관음을 비롯한 주요 도상은 채색하고 그 뒷배경인 바위면을 수묵화법으로 그리는 것은 의겸이 사용하였던 배경처리법이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주전각의 후불벽 이면에는 관룡사 관음벽화와 같이 백의를 입은 관음뿐이 아니라 수월관음도가 조성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는 18세기에 조성된 의겸의 흥국사 〈관음보살도〉와 비교하여 19세기 이후 관음보살도에 등장하는 민화적 요소와 道·佛 습합양상·중국 관음도 도상 출현 등이 나타나고 있어 18세기 후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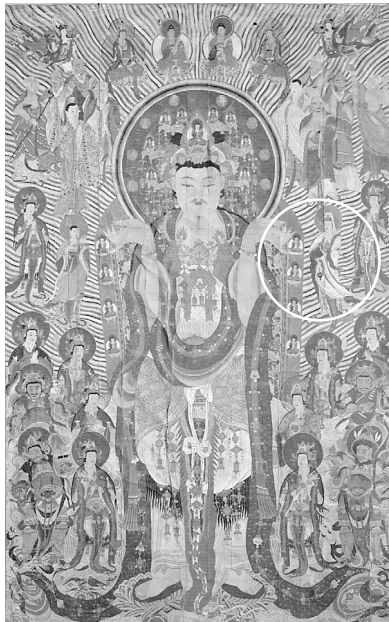


도 15 義謙等, 〈觀音菩薩圖〉, 1723년, 건본채색, 224.5×165.0cm, 여수 흥국사.

<sup>33</sup> 金周泰, 「觀龍寺大雄殿上樑文」, 『考古美術』 第6卷 第10·11號(通卷63·64號), (韓國美術史學會 1965. 11), pp. 141-142.

<sup>34</sup> 유경희, 「여수 興國寺 義謙作 觀音菩薩圖 研究」, 『불교미술사학』 제8집(불교미술사학회, 2009), pp. 41-71; 황금순, 「朝鮮末期 觀音菩薩圖의 諸 樣相」, 『불교미술사학』 제8집(불교미술사학회, 2009), pp. 73-107.

<sup>35</sup> 조선 말기 관음보살도의 도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황금순, 위의 논문, pp. 73-107 참조.



도 16 〈盧舍那掛佛畫〉, 1644년.  
976×617cm, 마본채색, 공주 신원사.

터 19세기 이후의 제작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35</sup> 그러므로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는 처음에는 수월관음도상을 그렸다가 어느 시기엔가 관음도상에 백의가 유행하면서 백의관음보살도를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시 후불화로서 관음보살도의 경우도 18세기에는 수월관음도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백의를 입은 백의관음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sup>36</sup> 후불벽 이면의 백의관음벽화의 경우도 이러한 양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 도상이 18세기에 이르러 처음 불화의 도상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불화의 경우 17세기 불화인 공주 新元寺 〈盧舍那掛佛畫〉(1664)(도 16)와 우학문화재단 소장 〈甘露圖〉(1681)를 비롯한 괘불화와 감로도에서도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을 볼 수 있어 17세기에는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의 도상이 불화에 나타나고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에 나타나는 백의관음 도상이 모두 의식용 불화인 감로도나 괘불화에서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의식용 불화에서 백의관음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은 의식집에서 관음에 관한 의식의 대두와 관련되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조선 중기에 간행되어 영산회괘불화의 전거가 되었던 『梵音集』에는 「觀音禮文」이 수록되어 있어 관음보살에 관한 예경이 조선 중기부터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음예문이 『범음집』에 수록되면서 관음의식이 영산자법과 같은 주요 의식에 자리잡게 되었다.

의식집의 절차를 도상화한 대표적인 괘불화인 來蘇寺 〈靈山會掛佛畫〉(1700)를 살펴보면 관음은 보관부터 발아래까지 드리워진 백의를 입고 정병을 들었다. 이후 내소사 괘불화를 모본으로 하여 화승 의겸이 조성한 다섯 점의 괘불화에서도 관음의 도상은 모두 보관부터 백의를 입은 관음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음보살 도상에 있어서 화승 의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괘불 뿐 아니라 스승 廣口와 함께 제작한 雲興寺 靈山殿 〈靈山會上圖〉(1719)의 협시보살에도 관음보살에게 백의를 적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후의

<sup>36</sup> 조선 후기 관음보살도의 도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유경희, 앞의 논문, pp. 41-71 참조.

겸화파였던 彩仁이 수화사가 되어 조성한 道林寺 普光殿 〈阿彌陀後佛畫〉에서도 관음도상에 백의관음이 보여지고 있어 영산회상도나 아미타후불화에도 수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백의관음 도상은 19세기에 관음신앙의 주요전각인 通度寺 觀音殿〈觀音菩薩圖〉(1858)나 梵魚寺 觀音殿〈觀音菩薩圖〉의 관음도상에 白衣觀音이 후불화의 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양상은 후불벽 이면의 관음벽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白衣觀音壁畫의 도상적 특징 요소

19세기에 이르면 관음전의 후불화에 백의관음 도상이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벽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다. 즉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벽화에도 백의관음 도상이 조성되게 되었다. 흥국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표 3〉 참조)의 관음은 반가좌한 모습으로 연꽃에서 피어오르는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그 연꽃의 한 줄기에서 피어오르는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그 연꽃의 한 줄기에서 피어오른 꽃에는 정병이 위치하고 정병 위에는 버드나무가 꽃혀져 있고 그 위로 앵무새가 앉아 있다. 선재동자 역시 연꽃의 한 줄기에서 피어오른 연꽃 위에 합장한 자세로 서 있는데 동자의 모습이 아닌 동녀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 도상의 가장 큰 특색은 관음이 앉아 있는 곳이 보타락가산을 묘사하는 기암괴석과 암굴이 아닌 파도 속의 연꽃 속에서 나온 연화대좌라는 점이 주목된다. 관음의 뒤에는 대나무의 표현도 없다. 이와 같은 도상은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1642년 梵魚寺開板)과 千手陀羅尼의 持誦을 권장한 책인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16년 金海 甘露寺)<sup>37</sup>(〈표 3〉 참조)와 같이 17-18세기 관음경전의 권두 변상도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미 17세기 전반부터 관음경전류의 판본에서는 바위산을 연꽃으로 변용시킨 도상이 간행되었었는데(도 17)<sup>38</sup>이를



도 17 〈觀音菩薩圖〉 판화, 1678년, 운흥사간본.

37 범어사 개판본 이외에 몇 종의 판종이 더 전하는데 대체로 연화대좌형 도상이 많다.

채색 불화로 가시화한 것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도상을 후불벽 이면 벽화에서 찾아보면 禪雲寺 大雄殿 백의관음벽화, 通度寺 觀音殿 창방 위 포벽에서도 같은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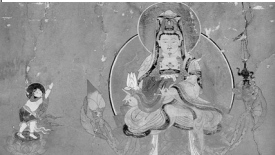




이러한 도상의 유행에는 『관세음보살영험약초』(이하 『약초』)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3 참조). 『약초』는 흔히 『천수경』이라고 알려진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이 널리 유통되면서 千手陀羅尼를 중심으로 편찬한 본으로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진작에 크게 기여한 책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천수경』과 『약초』는 조선 후기 이래 우리나라 지금까지 불교의식에 이 경이 빠짐없이 독송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지대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중국의 판본 가운데 『약초』와 같은 판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明代에 그려진 백의관음도 가운데 연꽃 위에 앉은 백의관음을 볼 수 있어 명대에도 이러한 도상이 있었음이 추측된다.

또한 연화대좌는 아니지만 관음이 밟은 족좌의 형태에서 연화 형태를 보인다던지 관음이 앉은 바위배경 옆으로 연꽃이 솟아오른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마곡사 대웅전 후불벽 이면 백의관음벽화를 들 수 있고 후불벽은 아니지만 대원사 대웅전 측면벽의 백의관음벽화에서도 같은 도상을 들 수 있다. 또한 연꽃이 파도 위에 솟은 도상은 1678년 운운사 <관음보살도>관화를 비롯하여(도 17) 18세기 이후 『佛頂心大陀羅尼經』 변상도(표 3 참조)에서도 나타나는 도상으로 운문사 비로전 후불벽 이면 백의관음벽화(표 3 참조), 범어사 대웅전 포벽의 백의관음벽화(표 3 참조)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화대좌 위에 앉은 백의관음 도상의 경우, 즉 『관세음보살영험약초』의 관음도상과 같이 흥국사 백의관음벽화와 통도사 포벽 백의관음벽화에는 연꽃 위의 합장한 선재동자, 연꽃 위의 정병의 모습도 유사하다. 또 연화족자를 밟고 있는 백의관음 도상의 경우는 판본의 예를 찾지 못했지만 마곡사 백의관음벽화와 대원사 불전 측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벽화에서 반가좌한 관음이 연화족자를 밟고 있는 모습이나 선재동자가 합장한 모습이 아니라 새를 앉고 있는 모습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파도에서 솟아오른 연화배경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음의 배경묘사와 파도 속에서 피어난 연꽃 모티프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관세음보살영험약초』와 『불정심다라니경』 변상도와 같은 조선 후기 관음경전의 영향력을 간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8 朴桃花, 「雲興寺 刻手 演熙의 板刻 양식」, 『강좌미술사』 제26호(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p. 657.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 佛教 撰述文獻 總錄』(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pp. 50-53.

표 3 백의관음 도상의 특징 요소

	연화대좌형	연화족좌형	연화배경
판본	 <p>『관세음보살영험약초』</p>		 <p>『불정심다라니경』1711년.</p>
후불벽 뒷면	 <p>홍국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p>마곡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p>운문사 비로전 백의관음벽화</p>
창방 위/ 옆면벽/ 포벽	 <p>통도사 관음전 백의관음벽화</p>	 <p>대원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p>범어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 이의 판본/ 연화좌형	 <p>『觀音靈課』, 간행 미상, 장서각 소장.</p>	 <p>선운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p>내소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p>



도 18 『慈容 53現』의 백의관음

한편 연화대좌형 백의관음도와 관련해서 그 도상의 전거를 明代 민간의 관음도를 모아 간행한 丁雲鵬(1547-1628) 『慈容53現』(도 18)에서 전거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0</sup> 명대의 그림 중에는 이와 유사한 도상을 회화한 작품인 仇氏의 〈白衣大士像〉(16세기 후반)을 통해 이러한 해석도 의미 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선운사 대웅전 백의관음벽화의 경우가 『자용53현』의 도상과 가장 유사한 모티프를 간취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불화에 명대 화보류의 유입과 이 영향을 받은 불교도상이 나한도나 도교식 인물표현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이미 여러 논고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자용53현』이 우리나라에

유통된 경로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조선 후기에 간행된 사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많은 관음관계 경전이나 영험록의 권두 변상도, 혹은 목판화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의 현황과 주요 도상의 특징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주불전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관음벽화는 백의관음도 뿐 아니라 수월관음도도 조성되어 있었다. 경상남도 창녕 관룡사 수월관음도는 화려한 보관과 선재동자, 정병과 새 표현 등 18세기 의겸에 의해 조성된 수월관음도의 특징을 공유하였다. 벽화의 조성연대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1959년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1749년(英祖 25)의 중수기록을 갖고 있어 18세기 중반의 대웅전 중수사실을 알 수 있다. 중수기록과 도상적인 특징에 의해 18세기에 관음도로 추정할 수 있다면 18세기 주불전 후불벽 이면 관음도는 꼭 백의관음도만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월관음도의 조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후불화로서 조성된 관음보살도가 대개 18세기에는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도가 거의 현전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도는 관음도상에 백의가 유행하여 수용한 것을 후불벽 이면 벽화에도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sup>40</sup> 황금순, 앞의 논문, pp. 77-7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의관음벽화의 도상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특히 관음의 배경묘사로 애용되었던 암굴과 바위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하여 연화대좌나 연화족좌, 그리고 파도 속에서 드러나는 연꽃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연화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17세기부터 간행되었던 관음경전의 변상도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천수다라니의 지송을 강조한 『관세음보살영험약초』, 관음점서였던 『관음영과』, 또 18세기 『불정심다라니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꽃이 배경이 되는 것을 공통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17-18세기, 19세기 간행된 관음경전류의 권두 변상도는 관음벽화를 비롯한 관음도상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 V. 白衣 표현을 통해본 白衣觀音壁畫의 樣式的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백의관음도는 모두 벽화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탕화의 경우처럼 화기를 갖고 있지 않다. 대체로 벽화의 경우 건물의 중수기 등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벽화의 조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벽화는 기록의 부재와 더불어 재료상 벽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존과 관리가 어려워서 대개의 경우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편년의 한계를 동반한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몇 점의 벽화를 기년이 분명한 불화와의 비교를 통해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관음보살의 백의를 모티프로 하여 양식적 특징의 시대적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관음보살의 백의는 여러 유형으로 표현되었다. 짧은 두건형 백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의, 그리고 몸을 감싸는 포의식으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 조각에서 백의관음의 머리 부분만을 짧게 두른 백의가 수용된 것 같은데 이러한 면을 충실히 보여주는 조각으로 수종사탑 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부산 내원정사 소장 의겸작 관음보살좌상(1723)을 들 수 있어<sup>41</sup> 조각상에 있어서도 화승 의겸의 영향력을 짐작할 만 하다.

불화에서는 대체적인 천의 유형이 몸을 감싸는 포의식이나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의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포의식은 마곡사, 내소사, 대원사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의의 경우 흥국사, 통도사, 운문사, 범어사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표 3〉 참조).

<sup>41</sup> 정은우, 「조선 후반기 彫刻의 對外交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7), pp. 195-200.



도 19 <釋迦牟尼後佛畫>, 1788년, 345.5×294cm,  
공주 마곡사 대웅전.



도 20 <釋迦牟尼後佛畫>, 1905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그런데, 충남 마곡사 <백의관음도>의 백의관음벽화의 천의표현은 머리 앞부분이 나온 듯 하며 백의 전체에 많은 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同寺 1788년 <釋迦牟尼後佛畫>(도 19)에서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로서 백의관음의 천의 표현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05년 대웅전三世佛畫 가운데 <釋迦牟尼佛畫>(도 20)의 협시보살로서 표현된 백의관음도가 있어 백의의 모습이 비교될 수 있다. 1905년 <석가모니불화>의 백의관음은 머리부터 내려오는 천의의 앞부분이 머리 앞쪽으로 길게 나와 있으며 전체적인 옷자락의 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1788년에 조성된 <석가모니후불화>의 백의관음에서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의를 입었으며 천의의 주름도 거의 없다. 앞부분이 길게 나오는 천의 표현은 약효가 조성한 관음도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조성되는 다수의 관음도상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마곡사 백의관음도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외에도 다른 구성요소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sup>42</sup> 황금순 선생의 논문에서도 앞이 나온 백의의 특징이 조선 말기 백의관음에서 드러나는 특징임을 지적하였다. 황금순, 앞의 논문, pp. 92-93.

한편 1458년 『佛頂心陀羅泥經』과 1711년 『佛頂心陀羅泥經』을 통해 백의관음도의 선재 동자의 도상이나 배경묘사의 양식적 특징 또한 참고가 된다. 특히 1458년본에서는 선재동자의 앞머리와 옆머리가 세 번 묶은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1711년본에서는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雙髻形으로 묘사되고 있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던 선재의 모습은 귀여운 동자의 모습으로 혹은 여자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화적인 표현도 등장하는 등 이러한 양상들은 특히 불화에서는 19세기 이후에 조성되는 관음보살도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 VI. 맺음말

신앙과 의례, 불화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불전의 후불벽 이면에 조성된 백의관음벽화를 소재로 벽화가 조성된 배경과 신앙, 그리고 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조선은 중국의 明·淸으로부터의 문물의 유입으로 문화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서적으로 대표되는 화보, 백과사전, 불경의 수입은 조선 후기 불화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후기 사찰의 승려들에 의해서 간행사업이 주도된 사찰 판 경전, 특히 관음경전은 당시 明末淸初에 새롭게 편찬, 간행된 최신의 전적을 수용하여 다시 편찬, 언해 등의 찬집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 사회에 유통되었다. 이 가운데 관음신앙을 살펴본 결과 중국 청에서 유입된 『관세음지험기』를 수용하여 조선사회에 맞게 유포시킨 「관세음지험기」와 『관세음보살지송영험전』이 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백의관음 신앙을 살펴보면 아이가 없는 사람이 지성으로 기원을 하면 남자아이를 준다는 송자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유학자였던 김만중의 소설 『사씨남정기』에서 표현된 관음에 관한 내용에서도 백의관음의 신앙요소를 확인하였다. 불교경전이라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소설 속에서 그러한 요소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저변에 어느 정도 백의관음에 송자신앙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유학자 가운데 일군의 집단에서 불교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당시 유통되고 있는 불전들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도 성리학적 명분론이 극명하게 제시되었던 17세기 말에 김만중이라는 노론계의 경화사족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이 백의관음도가 모두 송자신앙이었다라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칠성각으로 대표되는 칠성신앙이 강력한 송자신앙으로 대두되어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男兒를 선호하는 조선 후기에 민간신앙에서도 이러한 염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17세기에 간행된 불교경전과 국문학에서의 백의관음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송자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는 백의관음도에 어느 정도 송자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를 제시해 보았다.

한편 후불벽 이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도의 도상은 조선 후기 관음경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음의 주요 배경이었던 암굴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연화대좌, 연화족좌, 그리고 파도 위에 연꽃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천수경의 지송을 강조한 경전인 『관세음보살영험약초』나 『불정심다라니경』 변상도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백의와 관련하여 18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창녕 관룡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수월관음벽화가 당시의 화승 의겸의 관음도상과 관련하여 도상적 모티프에 있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후 관음도상에 입혀진 백의의 유행에 따라 벽화에 있어서도 백의를 수용하는 양상이 드러나게 됨을 살필 수 있었다.

후불벽 뒷면 벽화의 경우 대부분 채색에서는 근래 보수하여 원형의 채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늠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기록된 조성연대가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식적인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벽화의 조성과 관련된 편년문제, 실제로 행했던 의식 등은 추후 보완할 것이다. 이 글을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의 시고라고 생각하며 이후 개별적인 백의관음벽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과 편년문제를 더하여 총체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 백의관음(白衣觀音, White robed Kuan-yin), 백의관음벽화(白衣觀音壁畫, Wall painting of White robed Kuan-yin),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 Kuan-yin, Avalokīṣvara painting), 송자관음(送子觀音, Child-giving Kuan-yin), 관세음보살지험기(觀世音菩薩持驗紀, Kuan-se-um Bo-sal Ji-heum Gi: Record of Manifestations(resulting)from Recitation of Kuan-se-um Bo-sal Sutra and Mantras), 관세음보살지송영험전(觀世音菩薩持訟靈驗傳, Kuan-se-um Bo-sal Ji-song Yong-Heum Jeon: Record of Manifestations(resulting)from Recitation of Kuan-se-um Bo-sal Sutra and Mantras), 관세음보살영험약초(觀世音菩薩靈驗略抄, Kuan-se-um Bo-sal Yong-Heum Yak-cho: Record of Manifestations(resulting)from Recitation of Kuan-se-um Bo-sal Sutra and Mantras)

▣ 투고일 2009년 12월 1일 | 심사개시일 2009년 1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16일 ▣

## 참고문헌

### 1. 經典·辭典類

-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木版本), 1631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람 古1730 12).  
編者未詳,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木版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석 貴 294.333 B872).  
智瑩 讚, 『觀世音菩薩持頌靈驗傳』, 楊州 天寶山 佛岩寺本, 1795년.  
周克復 讚(淸), 『觀世音持驗記』, 日本: 刊行地 未詳, 昭和 3(168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1721 171, 1721 172).  
『觀世音菩薩靈驗略抄』, 한국학중앙연구원(C4 27), MF35 8309.  
朴世敏 編, 『韓國佛教儀禮資料集成』全4輯, 三聖庵, 1993.  
崔恒, 『觀音現相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실(古6611, 6612).

### 2. 도록·보고서

- 『韓國의 佛畫』1-40, 聖寶文化財研究院, 1989-2007.  
『高麗時代의 佛畫』, 시공사, 1996.  
『白衣觀音畫像』,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昭和 61(1986).  
『中國古代佛教版畫集』, 學苑出版社, 1998.  
『觀音特展』, 對北: 國立故宮博物院, 2000.  
『觀音의 繪畫-その美と歴史』, 大和文華館, 1974.  
『韓國의 사찰벽화-충청남도·충청북도』,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7.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사찰벽화전』, 국립대구박물관, 2006.  
사진 관조스님·혜설 박도화, 『사찰벽화』, 미술문화, 1999.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4.

### 3. 단행본 및 논문

- 『韓國의 古板畫』,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9.  
文明大, 『韓國의 佛畫』, 悅話堂, 1977.  
강희정,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韓國觀音信仰』,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1997.

後藤大用(코도우 타이오), 『觀世音菩薩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昭和 51(1976).

Chün-fang Yü, *Guanyi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김수현, 「朝鮮時代 觀音圖像과 信仰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_\_\_\_\_, 「朝鮮中後期の 觀音經典 刊行 研究」, 『文化史學』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pp. 137-158.

김미경, 「조선 17-18세기 관음보살도 연구」, 『역사와 경계』 제61집, 부산경남사학회, 2006. 12, pp. 25-56.

\_\_\_\_\_, 「朝鮮時代 觀音菩薩의 형식 고찰」, 『文化史學』 14호, 한국문화사학회, 2000, pp. 99-171.

\_\_\_\_\_, 「불교벽화의 연구-청도 운문사 비로전 관세음보살 벽화를 중심으로」, 『丹豪文化研究』,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2005.

김승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의 대웅보전 불교회화」, 『미술사학지』 3, 한국고미술연구소, 2000.

金煥泰, 「觀音信仰의 自力性에 대하여」, 『佛教學報』 26호,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1989, pp. 11-30.

金志原, 「朝鮮後期 靈山會上圖 研究」,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金贊鎔, 「朝鮮時代に 流布되었던 觀音靈驗說話」,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문명대, 「新興寺 대광전 벽화의 고찰」, 『美術史學研究』 제193호, 韓國美術史學會, 1992, pp. 63-76.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우리나라 사찰 전각의 벽화」, 『사찰벽화』, 미술문화, 1999.

박은경, 「조선전반기 불화의 對中交涉」,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pp. 80-129.

朴鐘大, 「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畫 研究」, 威德大學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종민, 「강진 무위사 극락전 벽화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오세례, 「朝鮮時代 後佛壁裏面 白衣觀音圖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유경희, 「여수 興國寺 義謙作 觀音菩薩圖 研究」, 『불교미술사학』 제8집, 佛教美術史學會, 2009, pp. 41-71.

李康根,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教建築 비교 연구-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제 230호 韓國美術史學會, 2001. 6.

李逢春, 「朝鮮時代의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東國大出版部, 1988, pp. 163-204.

李智冠, 「經說上의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東國大出版社, 1988, pp. 9-78

이지영, 「朝鮮時代 觀音菩薩圖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장경희, 「高麗 水月觀音圖의 白衣에 대한 考察」, 『미술사연구』 8, 미술사연구회, 1994, pp. 33-62.

장충식, 「無爲寺벽화 白衣觀音考」,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2004, pp. 132-150.

- 정병삼, 「통일신라 관음신앙」, 『韓國史論』 제8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국사학과, 1976.
- \_\_\_\_\_, 「高麗 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創刊號,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1996, pp. 77-126.
- \_\_\_\_\_, 「인도와 한국의 관음신앙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46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pp. 57-81.
- 정우택, 「高麗時代 禪宗系 水月觀音圖」,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도서출판 예경, 2007, pp. 209-222.
- 정은우,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도서출판 예경, 2007, pp. 193-207.
- \_\_\_\_\_, 「조선 후반기 彫刻의 對外交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도서출판 예경, 2007, pp. 195-200.
- 蔡印幻, 「禮懺儀文을 통해 본 觀音信仰」, 『韓國觀音信仰研究』, 東國大出版社, 1988, pp. 205-264.
- 黃金順, 「朝鮮時代 觀音菩薩圖 圖像의 한 研究」, 『美術資料』 第七十五號, 國立中央博物館, 2006, pp. 55-90.
- \_\_\_\_\_, 「朝鮮末期 觀音菩薩圖의 諸 樣相」, 『불교미술사학』 제8집, 佛教美術史學會, 2009, pp. 73-107.
- 洪潤植, 「朝鮮時代 眞言集의 간행과 儀式의 密敎化」, 『韓國佛教史의 研究』, 敎文社, 1988.
- \_\_\_\_\_, 「朝鮮後期 佛教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教」, 『韓國佛教史의 研究』, 敎문사, 1988.
- 潘 亮文, 「白衣觀音像についての一考察」, 『佛教藝術』 231, 毎日新聞社, 1997.
- Chün-fang Yü, "G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hvara", *La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the Chinese Buddhism 850-1850*, Spencer Museum of Art and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151-181.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중심전각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약 10여 점의 백의관음도를 통해 조선시대 백의관음 도상의 특징과 신앙,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략 2m 남짓한 후불벽 뒷면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법당 내의 장엄과 예배를 위한 준비공간으로, 혹은 보조·정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 공간을 또 다른 신앙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그 예배의 주체자로 백의관음을 가시화한 현상이 등장한 것은 주목을 요하고 있다.

조선 후기 불경의 간행은 사찰의 승려들이 주도하였다. 이 전적들은 당시 중국에서 입수한 명말청초에 새롭게 편찬·간행된 것이었으며, 이 전적들이 다시 편찬·언해 등의 찬집을 거쳐 조선 후기 사회에 유통되었다. 백의관음 신앙은 당시 조선 후기의 득남을 희구하는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 신앙되었던 것 같다. 당시의 관음경전과 김만중의 소설 『사씨남정기』를 통해 백의관음은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신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전이라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소설 속에서 그러한 요소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이 사회 저변에서 신앙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후불벽 이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는 원래 조선 전기부터 18세기까지 관음보살도의 주제로 가장 빈번한 조성 예를 보인 수월관음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백의관음의 유행과 함께 수월관음도상에 백의가 입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 창녕 관룡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수월관음벽화는 18세기 주불전 후불벽 이면에 조성되었던 수월관음도상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백의관음 신앙과 관음경전의 영향에 따라 관음보살 도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후불벽 이면 벽화에도 백의관음 도상이 적용되게 되었다.

후불벽 이면 관음벽화는 대체로 18세기 이후에 조성되고, 이후 후보된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되는데 도상에 있어서는 당시 유행되었던 관음경전 변상의 영향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관음경전인 『천수경』의 지송을 강조한 『관세음보살지송영험전』 권두 변상이나 『불정심다라니경』 변상도와 같이 관음도의 배경에 암굴과 암좌가 아닌 연화형 배경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두 경전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후불벽 뒷면 벽화의 경우 대부분 채색에서는 근래 보수한 경우가 많아 원형의 채색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기록된 조성연대가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식적인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벽화의 조성과 관련된 편년문제, 실제로 행했

던 의식 등은 추후 보완할 것이다. 이 글을 조선 후기 백의관음벽화의 시고라고 생각하며 이후 개별적인 백의관음벽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과 편년문제를 더하여 총체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것이다.

## Abstract

# The Iconography and Cult of White-robed Guanyin in Late Joseon

Ryu Kyunghee\*

This paper discusses iconographic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ons of White-robed Guanyin (or Avalokiteshvar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s well as the associated Guanyin cult. Portraits of White-robed Guanyin are frequently found on the rear walled-in sanctuary of the main prayer hall in Joseon-period Buddhist temples. The main prayer hall of Joseon temples often had an extra space behind its walled-in sanctuary, usually about 2M width, which was used for preparing for worship services or stowing away ritual supplies after a service. Interestingly, once into the late Joseon period, this space came to be used as a separate worship area reserved for the cult of White-robed Guanyin Bodhisattva.

In late Joseon, Buddhist scriptures were published mainly on the initiative of monks. Most scriptures printed during this period were re-editions of newly-published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late Ming to the early Qing Dynasty, accompanied by their vernacular translation to make them readable to the wider Joseon population. As for the White-robed Guanyin cult, it appears to have gained popularity around this same period, as a means to obtain male offspring. Both Guanyin sutras and *Sassi Namjeonggi*, a novel by Kim Man-jung dating from this period, attest to the popular perception of White-robed Guanyin as a deity granting male offspring to those who have been denied one. The fact that the White-robed Guanyin cult is mentioned in lay literature

---

\* Cheongju National Museum, Curator

like novels is quite a testimony to the breadth and depth of its reach in Joseon society.

Portraits of White-robed Guanyin, mostly found on the rear walled-in sanctuary of Buddhist prayer halls, appear to have derived from Water-Moon Guanyin Bodhisattva, the most popular of Avalokiteshvara portraits until the 18th century. It is likely that White-robed Guanyin was simply Water-moon Guanyin Bodhisattva clad in white. The portrait of Guanyin Bodhisattva housed in Daeungbojeon (Bejeweled Hall of Shakyamuni Buddha) of Gwanlyongsa Temple in Changnyeong, Gyeongnam, is a great example of 18th-century representations of Water-Moon Guanyin Bodhisattva, found on the rear walled-in sanctuary of a main prayer hall. In subsequent eras,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White-robed Guanyin cult, coupled with the influence of Guanyin sutras, came to largely reshape the iconography of Guanyin Bodhisattva. The appearance of the portraits of White-robed Guanyin on the rear walled-in sanctuary of Buddhist prayer halls was precisely a consequence of this renown.

Most Guanyin murals on the rear walled-in sanctuary of prayer halls appear to have been created during the 18th century and later, even if they were retouched or updated subsequently. These murals also appear to have been subjected to the iconographic influence of illustrations in Guanyin sutras. The frequently flourished, lotus blossom-filled backdrops of Guanyin portraits, instead of an austere rock cave, for example, have their origin in such images as the illustration at the front page of 'Gwanseeum Bosal Jisong Yeongheomjeon,' the section of the *Cheonsu Sutra* (Thousand Hand Sutr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hanting Buddhist scriptures, and illustrations in the *Buddha Summit Dharani Sutra* (Buljeongsim Daranigyong).

Meanwhile, as the vast majority of these rear walled-in sanctuary murals portraying White-robed Guanyin have been repaired in recent decades, it is rather difficult to determine their original coloring. Also, given the nearly complete absenc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dates of creation, it is well-nigh impossible to trace their stylistic characteristics back to precise sources of influence. Hence, more research is needed concerning the dates of creation of white-robed Guanyin murals, as well as the details of worship services performed in this space reserved for Guanyin devotion. Future research should improve on this study, which is but a small first step towards understanding late-Joseon White-robed Guanyin murals, by examining individual murals in detail, with regard to their iconographic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date of creation, at the same time as trying to provide a clearer overall picture of this genre.